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청소년주일로 지킵니다. 푸른꿈 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합니다. 다음 주일은 젊은이 주일로 지킵니다.
- 꾸러기학교 봄 여행이 21일(화)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있습니다.
- 젊은이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4일(금)부터 1박 2일간 동두천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 비움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4일(금)부터 1박 2일간 영덕 축산에서 있습니다.
- 오후 2시부터 사랑방탁구대회 예선전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생일)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0 호

2024년 5월 1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독립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공동체분들의 기도 속에 해외 문화체험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랜드 캐년을 중심의 3박4일 여행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2박3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의 변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인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다른 문화 속에서의 여행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예상 외로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생각지 못한 변수로 당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행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를 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수집하고 예습합니다. 가는 길에서부터, 볼거리, 먹을 거리 등 오감으로 느끼며 유익하고 즐거운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낯설고 때에 따라 그것이 싫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의 맛있는 음식이 시간이 지나서는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한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잘 먹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한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 다른 것도 도전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살면서 필요한 경험,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연습하고 익히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배웁니다. 사회화, 재사회화, 평생교육 등의 용어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 각자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깨달고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우며 알아가야 합니다. 비단 학생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겸손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여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준비한 것들과 실행하고 경험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들과 그 상황을 정리하여 저장합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또 다른 상황에서 방법과 힘을 발휘해서 더 많은 정보와 느낌,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고 독립된 한 사람으로써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방법을 찾아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자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필요한 것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2장 419장 50장

기도 : 전향옥 집사

성경 : 이사야 46장

제목 : 이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1. 내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What)

<문단구분>

1~2절 무거운 짐만 되는 우상

3~5절 하나님의 보호하심

6~7절 우상의 쓸모없음

8~13절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

2. 의미: 전쟁에 패하여 바빌론의 신상이 페르시아로 끌려갈 것이다 (Why)

1) 수많은 신상은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졌다.

2) 그러나 자기 신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

3)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3. 적용: 우리 안에 우상을 살피고 없애자 (How)

1)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자.

2)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에 확신을 가집시다.

## 탈무드 읽고 나서

멋쟁이학교에서는 필독 독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필독 독서란 꼭 읽기를 추천하는 100권을 읽어 본 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한 들어보는 수업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탈무드는 율법 학자들이 사회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지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유대인 지혜의 원천이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구요. 이 책을 읽고서 가장 감동을 깊게 남겼던 두 대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책을 읽는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서 자신에게 꼭 맞는 적용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제목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인간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 소제목 <자선에 네 가지 유형>

1. 자진해서 돈이나 물품을 남에게 주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돈과 물품을 내놓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2. 타인이 자선을 베풀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

3. 자기도 기꺼이 자선을 베풀고 남들도 자선을 베풀기도 바란다.

4. 자기도 베풀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베풀는 것도 싫어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자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이며, 세 번째 유형은 선량한 사람이고 네 번째 유형은 완전한 악인이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화진의 학생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사도행전 2 : 17-18 인도자  
6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시 편 32 : 5 인도자  
다함께  
185 182 다함께  
다함께  
박지호 학생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16 : 1-15 화진심 학생  
주안에 우린 하나 푸른꿈사랑방  
“ 교회, 성령의 공동체 ” 정재훈 목사  
< 성 찬 식 >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191 다함께  
정아인 학생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이안 최시원 김진울 김예흠 / 봉헌위원 : 최시현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 꽃꽂이 : 김영화

예 배

## 공동기도문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 교회, 성령의 공동체

예수님의 고별설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끝날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중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특정한 개개인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이 없이 기도하던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럴 때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삶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낙귀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광릉숲 산새탐험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만나서 갔습니다. 해설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을 보냈는데 함께 하는 동안 새를 만나지는 못하고 새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신 겨우살이, 나뭇잎, 바람에 대해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꾸러기들은 설명도 잘 듣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봄에 본 올챙이들이 다리가 나왔는지, 개구리가 되었는지도 찾아보고 사슴퐁뎅이랑 장수퐁뎅이도 만나고 여러가지 애벌레도 만나고 왔습니다.

스승의 날이 지난 16일에, 부모님들이 꾸러기학교에서 꾸러기들과 하루를 보내며 선생님들을 위한 카드와 노래, 케익 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꾸러기들과 부모님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꾸러기들은 틈틈이 아름이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배들에게 받았던 카드들이 생각나는지 작년보다 더 큰 정성을 쏟는 모습입니다. 카드를 만들고 쓰는 과정에서 친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일잔치에는 시간이 되는 꾸러기친구들의 엄마들도 축하해주고 싶어 오셨습니다. 따라운 동생들도 언니를 안아주고 볼에 뽀뽀해주며 축하해주고 엄마들도 선물로 이불썰매를 태워주셨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수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어린이학교는 지난주에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심히 지냈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어린이들이 바빴습니다. 그 전 주 수요일 자치회의를 열어 스승의 날 이벤트의 방향과 내용을 정한대로 회장단의 주도 아래 화요일 일과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일일도우미로 섬기신 학부모님들 덕분에 교사들은 '평일 낮의 자유 시간'이라는 감사한 선물을 받아서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고 학교로 돌아오니 어린이들의 깜찍하고 정성

스러운 축하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출타 중이신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체 학부모님들이 영상편지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어린이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 요리선생님,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자리 찾기, 기본에 충실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건강검진부터 지난 주 스승의 날 행사까지 매주 한 번 이상 공휴일과 행사가 있어서 숨 가쁘게 지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예배와 성서일기, 연산과 독서, 일기와 과목별 과제, 그리고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1학년은 1학년대로, 6학년은 6학년대로 학년과 반에서 맡은 자신의 자리와 역할에 충실한 생활을 하자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이번 주에는 졸업생들이 찾아오는 홈커밍데이를 처음으로 1박2일로 준비했습니다. 동문들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축구장에서 펼쳐진 멋쟁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열기들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수요일에는 재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패러디 영상과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졸업생들의 감동어린 소감을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빗줄기가 떨어지는 와중에 고기를 먹으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한 것들도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으로 <세계를 덮는 물결, 한류>를 진행하며 멋쟁이들이 분류별로 발표하고, 내용 정리를 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년별 여행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여행 중에 있는 4학년과 정태일 목사님, 이월영 사모님, 최기찬 선생님, 그리고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무림리의 아침

요즘 난 아침 일찍 일어난다. -원래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밤 시간을 참 좋아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공상을 하는 것도 좋아했다. 나이가 들어서야 미루던 김치도 담고, 반찬 만들기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무림리에 들어와서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활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 6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급기야는 잠도 못 들고 머리도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아침에는 늦게까지 늦잠을 잤다. 하루하루가 불성실해지는 것 같아서 수면 시간을 바꿔보기로 했다.

일단은 저녁 10시에 잠을 자기로 했다. 처음에는 11시나 12시에 깨서 잠을 못 자다가 새벽 6시에 잠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에 깨도 일어나지 않기로 했다. 누워서 새벽 5시 반까지 버티다가 일어났다. 처음엔 피곤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니 요사이 저녁 10시에 누우면 그냥 잠이 든다. 그리고 나니 아침이 보인다.

무림리의 아침은 새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맑은 공기와 바람소리, 그리고 어스름 속에 켜지는 아침의 빛깔은 무척 오묘하다. 지천으로 깔려 있는 쇠비름에 맺힌 이슬은 이제껏 우습게만 보던 쇠비름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맑은 모습이다. 물론 요즘은 그 시간이면 오묘한 색깔이라기보다 그냥 아침의 빛깔이지만 말이다.

새벽 기도 모임을 마치고, 교회 마당을 크게 한 바퀴 돈다. 그러면서 밭에 무엇이 심겼는지 상추가 얼마나 컸는지 썩갠 것은 얼마나 썩어 나았는지, 맵기만 한 겨자채는 벌레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데크에 앉아 마시는 커피는 '호사' 그 자체이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오롯이 앉아 마시는 커피 타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다. 더욱이 요새는 갖가지 꽃들도 그 시간에 맞춰, 멋에 흠뻑 취해 있는 나와 시선을 맞추고자 한다.

무림리는 함께 사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멋진 곳에 살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루터기 전경희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411장

성경 : 요한1서 4장 7절-12절

말씀 :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지구온난화와 경제위기>

지구 온도가 1°C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 노력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1. 한국 공동체 협의회에 속한 공동체들 모두 공동체의 소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2.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서 교회 개혁과 사회변혁의 답이 될 수 있기를.

###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청소년 주일>

1. 청소년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푸른꿈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무릎수술후 회복 중에 있는 정낙귀집사님과 외부에 출타해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잡초들은 어쩔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작물들 보다 훨씬 크고 무성한 잡초들을 볼 때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없애도 없애도 다시 올라오는 잡초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사는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도 생명운동과 바른 먹을거리를 위해 지켜가야 하는 일이기에 오늘도 공동식구들은 잡초와 씨름을 합니다. 아~~벌레와의 싸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